

# 산학협력 매개 주체로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

허선영\*\* · 장후은\*\*\* · 이종호\*\*\*\*

## Whither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 Realities and Alternatives\*

Heo, Sun-Young\*\* · Jang, Hoo-Eun\*\*\* · Lee, Jong-Ho\*\*\*\*

**요약** : 2011년부터 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의 LINC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산학협력 중점교수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산학협력 활동의 매개 주체로서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70%를 LINC 사업비에 의존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상 LINC 사업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LINC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비롯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법·제도적, 재정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산학협력,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

**Abstract** :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the LINC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1, the number of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has been sharply increased for the last five years. It is viewed that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have played a prime role for promoting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However, there is a potential threat that about 70 per cents of total expense needed for maintaining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are dependent upon finances of the LINC project. There is a concern that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will be disappeared, if a university or college fails to be selected in the LINC project or the government decides to suspend the LINC project. In order to grasp the realities and policy alternatives on the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system, this paper conducts a literature survey, a questionnaire survey, the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the persons concer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legal, financial and structural dimensions.

**Key Words** :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Faculty, the Leaders i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LINC) Project

### 1. 서론

2012년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 양성  
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  
학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 선정 평가 지표에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을 반영하였고, '산학협력중

점교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2014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수는 5,726명(대학산학협력실  
태조사서, 2013)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학협력으로의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 산업체경력  
중심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대학의 산학협  
력 분위기를 확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부각된 상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 연구임 (NRF-2014S1A5B8A02074068)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학술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olic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husy6019@naver.com)

\*\*\* 경상대학교 산학협력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Senior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olic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jhe@gnu.ac.kr)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산학협력정책연구소 부소장(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Vice-Director, The Institute for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Policy)(jhl@gnu.ac.kr)

황이다(김승환, 2013). 하지만 제도 추진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되고 있다. LINC 사업 등 사업단에 소속되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하는 경우 사업비에 의한 인건비 충당비용이 높고, 그에 따라 산학협력중점교수제도에 적절한 역할보다는 사업의 다양한 행정 지원 및 문서 작성 등의 업무에 활용되는 등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단 예측성과 자율성 약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사업비에 의존하는 인건비 및 사업 성패에 따라 고용여부가 결정되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산학협력체제 개편보다는 사업단 유지와 단기 실적에 급급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2015년 현재, LINC사업의 경우 사업비에서 인건비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에서 탈락 및 종료된 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건비 지급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향후 산학협력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과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본 제도의 취지와 달리 대학의 산학협력체제의 개편보다는 비정규직 교원의 확대 및 기존 교원과의 갈등 등의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다(김승환, 2012).

산학협력 활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대학의 산학협력 분위기를 확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부각된 상황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역량이 갖추어진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추진 이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본연의 취지와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와 관련된 문헌 조사를 실시한 후, 교육부 산학협력과의 협조 하에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2015년 7월~8월까지 2개월 동안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채용형을 말함)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들은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2.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현황

### 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개념 및 역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받는 교원을 의미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를 10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자 또는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에 근거하여 지정된 교수로서,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교육, 연구·개발, 창업 및 취업지원,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수로 정의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따라서 산학협력중점교수도 일반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양이나 특정 학과의 전공과정 수업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하고, 역할은 교육, 연구,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기획으로 구분된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은 지정형과 채용형으로 구분되며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유형

## 2)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제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확산과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증가되었지만 기존 산학협력 대학재정지원사업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수행되므로, 재정지원이 중단될 경우 산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현장친화형 교원인사제도를 통해 산학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2011년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같은 해 고등교육법에 산학협력중점교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합동으로 8.15 경축사 후속 정책과제인 ‘산업인력 육성·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에서 대학교육이 기업현장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 CEO 출신 등 퇴직인력을 교수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과제로 반영하였다. 이에 산업체 경력자인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2012년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재 양성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평가 지표에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을 반영하였고, ‘산학협력중점교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3.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

### 1)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 현황

현황조사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현황, 산업체 경력, 연봉, 활동내역 등을 조사하였다. 대학은 81개교, 전문대학은 78개교 등 총 159개 대학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773명이다. 현황조사 분석은 LINC 참여여부, 설립주체, 유형별

표 1. 현황조사 기초통계 (단위: 개교)

전체	LINC 참여여부		설립주체		유형	
	참여	미참여	국립대	사립대	대학	전문대
159	72	87	24	135	81	78

자료: 현황조사 결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1. 참조).

현황조사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남성의 비율이 86%로 높고, 국립대와 사립대 비교 시 국립대는 90%대로 남성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은 만 52.8세로 분석되었다(표 2. 참조).

표 2. 산학협력중점교수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세, %)

구분	성별			연령	
	남	여	소계		
전체	1,519 (86)	241 (14)	1,760	52.8	
LINC 참여여부	참여	1,032 (89)	124 (11)	1,156	52.6
	미참여	487 (81)	117 (19)	604	53.2
설립주체	국립대	226 (97)	6 (3)	232	54.3
	사립대	1,293 (85)	235 (15)	1,528	52.6
유형	대학	1,125 (90)	129 (10)	1,254	53.4
	전문대학	394 (78)	11 2(22)	506	51.5

\* 13명은 성별 미기재  
자료: 현황조사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형태는 전임교원 82%, 비전임교원 18%이지만,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20%수준이다. LINC 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 비교 시 참여대학의 비전임 비율이 22%로 높게 분석되었고, 설립주체별로 채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 중 사립대 비전임교원은 10%인데 비해 국립대는 67%로 국립대가 비전임교원 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립대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으로 대다수 채용됨에 따라 지속가능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현실이다(표 3. 참조).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은 민간산업체(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민간기업) 경력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출연연, 기타) 18%, 국가기관 6%

표 3.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형태  
(단위: 명, %)

구 분		정년 전임	비정년 전임	비전임
전 체		354(20)	1,101(62)	318(18)
LINC 참여여부	참여	193(17)	722(62)	252(22)
	미참여	161(27)	379(63)	66(11)
설립주체	국립대	30(12)	51(21)	161(67)
	사립대	324(21)	1,050(69)	157(10)
유형	대학	237(19)	743(59)	285(23)
	전문대학	117(23)	358(70)	33(6)

자료: 현황조사 결과

이고, 국립대의 경우만 대기업 경력이 20% 수준이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기간은 평균 20.3년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자격요건인 산업체경력 10년을 훌쩍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참조).

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최종학위는 박사가 53%, 석사 35%, 학사 12% 순이고, 특히 국립대의 경우는 66%가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는 최소 학력기준을 제시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학력자가 채용된 것으로 분석 되었다(표 5. 참조).

표 5.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종학위  
(단위: 명, %)

구 분		학사	석사	박사
전 체		220(12)	618(35)	935(53)
LINC 참여여부	참여	145(12)	390(34)	629(54)
	미참여	75(12)	228(37)	306(50)
설립주체	국립대	35(15)	46(19)	160(66)
	사립대	185(12)	572(37)	775(51)
유형	대학	162(13)	355(28)	746(59)
	전문대학	58(11)	263(52)	189(37)

자료: 현황조사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초기 2012년도 교육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전공특성이 이공계 65%, 비이공계 35%로 조사되었으며,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공계 43%, 비이공계 57%로 나타났다. 대부분 비이공계가 높게 분석 되었지만 국립대와 사립대의 비교 시 국립대의 경우는 이공계가 72%, 비이공계가 28%로 다른 패턴으로 분석되었다(표 6. 참조).

채용된 이후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수행하고 있는 주된 역할은 취업 및 창업지원 33%, 교육 31%, 연구 15%, 정책/기획 14% 순으로 분석되었다. LINC

표 4.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  
(단위: 명, %)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민간 기업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 기관	출연연	기타기관
전 체		749 (33)	612 (27)	374 (16)	139 (6)	127 (6)	79 (3)	55 (2)	15 (7)
LINC 참여여부	참여	520 (34)	428 (28)	216 (14)	94 (6)	88 (6)	38 (2)	39 (3)	109 (7)
	미참여	229 (30)	184 (24)	158 (21)	45 (6)	39 (5)	41 (5)	16 (2)	48 (6)
설립주체	국립대	100 (27)	84 (22)	39 (10)	50 (13)	24 (6)	15 (4)	17 (5)	46 (12)
	사립대	649 (34)	528 (28)	335 (17)	89 (5)	103 (5)	64 (3)	38 (2)	111 (6)
유형	대학	547 (33)	441 (26)	235 (14)	118 (7)	100 (6)	56 (3)	51 (3)	117 (7)
	전문대학	202 (32)	171 (27)	139 (22)	21 (3)	27 (4)	23 (4)	4 (1)	40 (6)

자료: 현황조사 결과

표 6. 산학협력중점교수 전공특성

(단위: 명, %)

구 분		이공계	비이공계
전 체		727(43)	966(57)
LINC 참여여부	참여	547(49)	566(51)
	미참여	180(31)	400(69)
설립주체	국립대	173(72)	66(28)
	사립대	554(38)	900(62)
유형	대학	552(46)	642(54)
	전문대학	175(35)	324(65)

\* 80명은 전공 미기재  
자료: 현황조사 결과

참여대학과 미 참여대학 비교 시 미 참여대학의 경우가 취업 및 창업지원비율이 40%로 높고, 국립대와 사립대 비교 시 국립대의 경우는 연구가 48% 비율로 높아, 국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역할이 기존 연구교수들과 역할의 명확히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대학과 전문대 비교 시 대학은 교육이 33%, 전문대는 취업 및 창업지원이 39%로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기존의 일반 전임교원이 할 수 없는 산학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주요역할로 정하고 있음에도 전공강의 등 일반 전임교원의 역할을 대체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 질 수 있다. 또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다양한 트랙과 역할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며, 많은 대학들이 산학협력중점교수만의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7. 참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소속기관은 대부분 학부/학과 소속 60%대이고, LINC참여대학과 미참여대학 비교 시 학부/학과 소속은 미참여대학이 26%높고, 산학협력단 소속은 참여대학이 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산학협력단의 역량강화에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대의 경우는 소속기관이 학부/학과와 산학협력단 소속 비율이 비슷하지만 사립대의 경우는 57% 비율로 차이가 나고, 이는 국립대의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많고, 사립대는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많은데서 오는 차이로 분석된다. 대학과 전문대학 비교 시 전문대학의 경우 학부/학과 소속비율이 85%로 높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취·창업교육 중심의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초에 채용될 때와 현재의 소속기관을 비교하면 학부/학과 소속으로 변경된 경우가 발생하였다(표 8. 참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연봉은 최저 35,130천원, 최고 118,659천원이며, 평균 연봉은 76,895 천원이다. 연봉의 교비지원 비율 67%, LINC사업 22%, 산학협력단 9%이고, LINC참여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건비 집행 비중은 LINC사업 비로 33%, 교비 59% 비율이다. 국립대와 사립대 비교 시 사립대의 경우 학부/학과 소속의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많으므로 교비 지원비율 72% 높고, 국립대는 사립대의 경우보다 산학협력단 지원 비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 및 표 10. 참조).

표 7. 산학협력중점교수 역할

(단위: %)

구 분		교육	연구	취업 및 창업지원	정책/기획	기타
전 체		31	15	33	14	7
LINC 참여여부	참여	33	15	30	15	7
	미참여	26	15	40	11	7
설립주체	국립대	17	48	13	17	5
	사립대	32	14	34	13	7
유형	대학	33	17	31	13	6
	전문대	27	11	39	14	9

자료: 현황조사 결과

표 8. 산학협력중점교수 소속기관

(단위: 명, %)

구 분		학부/학과	산학협력단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기업지원센터	공용장비운영센터	취업지원센터	기타	
최 초	전 체	1,218(65)	306(16)	181(10)	22(1)	18(1)	9(0)	3(0)	25(1)	105(6)	
	LINC 참여여부	참여	701(56)	246(20)	181(14)	18(1)	17(1)	9(1)	3(0)	10(1)	73(6)
		미참여	517(82)	60(10)	0(0)	4(1)	1(0)	0(0)	0(0)	15(2)	32(5)
	설립주체	국립대	90(32)	94(34)	48(17)	5(2)	4(1)	3(1)	2(1)	3(1)	31(11)
		사립대	1,128(70)	212(13)	133(8)	17(1)	14(1)	6(0)	1(0)	22(1)	74(5)
	유형	대학	758(56)	273(20)	170(1)	14(1)	15(1)	9(1)	3(0)	12(1)	90(7)
전문대학		460(85)	33(6)	11(2)	8(1)	3(1)	0(0)	0(0)	13(2)	15(3)	
현 재	전 체	1,246(67)	260(14)	152(8)	25(1)	23(1)	13(1)	4(0)	23(1)	107(6)	
	LINC 참여여부	참여	723(59)	210(17)	152(12)	21(2)	22(2)	13(1)	4(0)	7(1)	75(6)
		미참여	523(84)	50(8)	0(0)	4(1)	1(0)	0(0)	0(0)	16(3)	32(5)
	설립주체	국립대	93(33)	89(32)	48(17)	5(2)	4(1)	3(1)	2(1)	3(1)	32(11)
		사립대	1,153(73)	171(11)	104(7)	20(1)	19(1)	10(1)	2(0)	20(1)	75(5)
	유형	대학	772(59)	242(18)	141(11)	16(1)	20(2)	13(1)	4(0)	12(1)	92(7)
전문대학		474(88)	18(3)	11(2)	9(2)	3(1)	0(0)	0(0)	11(2)	15(3)	

\* 겸임소속 중복 포함

자료: 현황조사 결과

표 9.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평균 연봉

(단위: 천원)

구 분	최저	최고	평균	
전 체	35,130	118,659	76,895	
LINC 참여여부	참여	35,130	118,659	76,895
	미참여	49,490	110,856	80,173
설립주체	국립대	35,130	104,974	70,052
	사립대	37,000	118,659	77,830
유형	대학	35,130	118,659	76,895
	전문대	10,800	110,856	60,828

자료: 현황조사 결과

표 10. 산학협력중점교수 인건비의 주체별 지출 비율

(단위: %)

구 분	LINC사업	산학협력단	교비	기타	
전 체	23	9	67	1	
LINC 참여여부	참여	33	8	59	1
	미참여	0	11	87	2
설립주체	국립대	35	25	35	5
	사립대	21	7	72	1
유형	대학	28	8	62	1
	전문대	8	10	81	1

자료: 현황조사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학협력활동을 위해 강의 시수 감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의시수를 초과하여 대다수 추가강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표 11. 참조).

표 11.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의시수 및 추가강의 수당

(단위: 시수, 천원)

구 분	책임 강의 시수	실제 강의 시수	추가 강의 수당	1인당 추가 강의수당	
전 체	4.9	7.1	642,583	1,047	
LINC 참여여부	참여	4.8	6.1	416,275	1,013
	미참여	5.1	8.9	2,263	1,115
설립주체	국립대	3.7	4.8	50,373	1,259
	사립대	5.1	7.4	592,210	1,032
유형	대학	4.4	6.6	399,799	1,030
	전문대	6.2	8.3	242,784	1,074

자료: 현황조사 결과

## 2)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에 대한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실태조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산학협력관계자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된 조사내용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 처우 및 지원체계, 채용인정기준,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것이다. 응답자의 49%가 LINC 사업단 소속, 산학협력단 소속 35% 등이고, 응답자의 직위는 산학협력중점교수가 42%, 사무원/직원 25% 등이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50대 48%, 30대 17%, 남자 71%, 여자 29%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표 12. 참조).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채용되어 수행해야 하는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는 설문에 취업 및 창업 39%, 정책기획 20%, 교육16%, 연구 9% 순으로 나타났다.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의 현재 수행중인 주된 역할은 취업 및 창업지원이 39%, 교육이 16% 비율이다. 기타로 산학협력, 기업지원, 취업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그림 2. 참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학술적 성과 보다는 산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임용된 교원이므로 관련 경험을 학생에게 전달하여 산업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산업체에서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교수의 책임과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주로 LINC사업과 연계되어 채용되다 보니 진정한 의미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부각이 안되고 있다. 산학협력교수를 대학과 기업체를 연결하는 Business Development 기능을 주고 그것에 맞는 보상체계를 갖추면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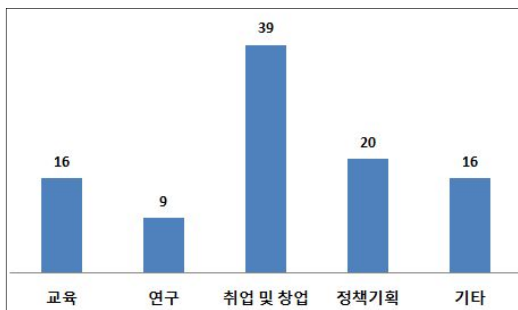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표 12. 설문조사 기초통계 (단위: %)

구 분		비 율
소속기관	LINC사업단	49
	산학협력단	35
	대학	8
	기타	8
	합계	100
직위	단장/부단장	19
	팀장/과장	12
	산학협력중점교수	42
	연구원	5
	사무원/직원	23
	합계	100
연령	20대	12
	30대	17
	40대	15
	50대	48
	60대	8
	합계	100
성별	남	71
	여	29
	합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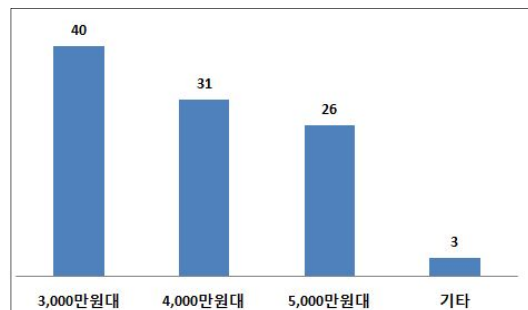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위해서 지급되어야 할 적정 연봉 수준은 3,000만원대가 40%, 4,000만원대가 31%, 5,000만원대가 26%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역할에 따라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그림 3. 참조).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2.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3.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연봉수준(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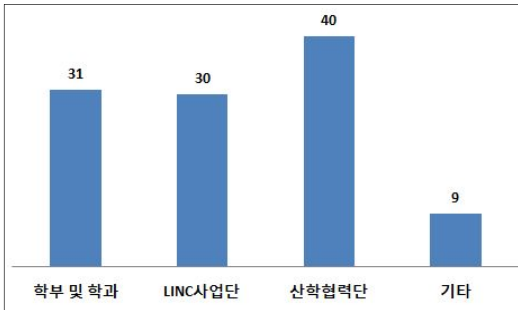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속되어야 할 곳은 산학협력단 소속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역할에 따른 적절한 배치, 별도의 독립기관을 만들어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그림 4. 참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전임교원으로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산학협력 직원, 역할에 따른 지위부여 등의 의견도 제시되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학 및 사업단에서 꼭 지원해 할 부분으로는 산학협력활동을 위한 대학 추진체계의 확립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행정지원, 대학 내 안정된 지위, 근무조건, 급여 현실화, 신분안정화, 업무권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그림 5. 참조).

그리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채용인정기준인 10년 산업체 경력에 대해 조사 대상의 40%는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나, 29%는 부족, 6%는 매우부

족 등 전체의 35%가 현재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채용기준 분야는 43%가 적당하다고 하였으며, 채용기준은 연구기획 능력, 전문성, 교육자적 자질, 성실함, 책임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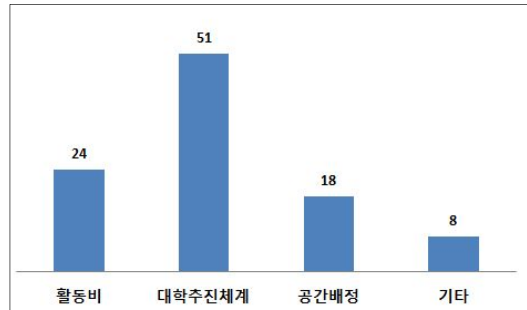
다음으로, 10년 이상의 산업체 경력 이외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활동을 위해서는 산학협력 활동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전문성, 해외경험, 산학협력단 업무 이해, 소신감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그림 6. 참조).

현재 산학협력교수는 사무업무, 기획, 프로젝트 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산학협력교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학관련 강의, 경험 및 해당 분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37%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26%가 처우 및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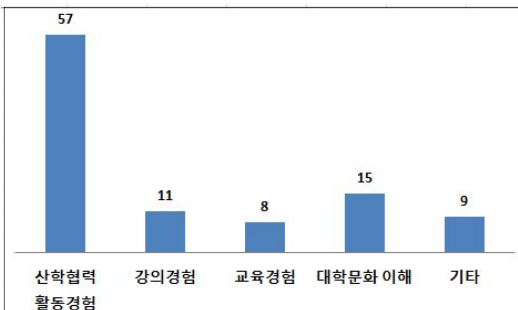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4.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소속(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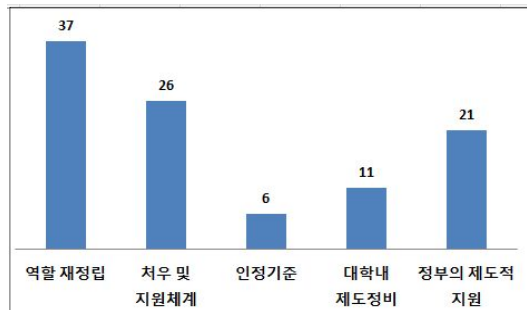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5.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지원사항(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6.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필요경험 및 노하우(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림 7.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제도개선(단위: %)



아울러,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본연의 목표인 산학협력 체제로의 개편을 위한 활동보다는 사업단 정책 및 기획과 행·개정 업무 등의 소모성 업무에 많은 역할 부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을 보면 교육, 연구, 취창업 등 산학협력 고유 업무에 비해 정책/기획 등 사업단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로서 전체 2번째 많은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실태를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사업단 등의 학내 조직에서 실질적인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보다는 정부 사업수주 등의 정책 및 행정 업무에 치우쳐 실질적인 산학협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따른 반증으로서 산학협력중점교수는 LINC 사업단보다는 산학협력단에 배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는 학과에 소속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사되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본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내 추진체계 지원이 절실하며 이는 여전히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학내 자립화와 대학 내 위상 정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설문에서 대학과 사업단에서 꼭 지원해 할 부분으로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대학 추진체계가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대학 내 자립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학의 의사결정체계 및 정보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 체계적인 위상 정립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욱 더 사업단 내 소속되어 있는 등 대학 내 공식 기구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학 내 정보 및 의사결정 체계에서 위상 정립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지속가능한 역할 확보 및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연봉수준을 일부 높이는 노력보다는 위상을 높이는 비형식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지급되어야 할 평균 연봉수준이 3000만원대로 40%로 가장 많은 편이나 연봉수준에 대한 불만보다는 학내 위상 미 정립과 고용불안 등의 커리어 발전에 대한 우려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 내 위상과 대학 내 지원체계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커리어 경로발전의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관련 관계자 심층면담조사 결과

심층면담조사는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학협력관계자 6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심층면담조사는 설문조사가 가지는 신뢰성 및 타당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생생한 실태를 통해 현상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심층면담 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역할 재정립 필요, 처우 및 지원 체계 개선, 인정기준 개선, 자립화 등이 주요 이슈로 도출되었다.

첫째, 역할 재정립에 관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인은 단기 계약방식에 의한 비전임 체계로 대부분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그들의 산업체 등의 경험에서 가진 강력한 실무노하우에 대한 장점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학과교수의 부족한 실무경력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에 있어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력에 따라 기존 전임교수와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직무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산학협력중점교수 처우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으로 현재 많은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강의전담 및 연구전담과 동일한 급여체계 및 지원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산업체 및 외부기관 등에서 10~30년간 근무하신 분들을 동일한 처우로 적용시킴으로 인해 채용(스카우트 등) 및 실 활용 방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소속, 역할, 처우 등 모든 면들이 대학들 간에 서로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유지됨으로써 산학협력중점교수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활용하는 대학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향후 LINC사업 종료 후 또는 정권 교체 후 산학협력중점교수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는 상태라 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 활용 및 자립 활용 등도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처우나 인사 체계에 대한 최소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요건을 만족하는 학교만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일반교수 급의 정년 보장 및 인사 평가를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유지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함에 따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될 숙제들이 남아있다. 현재 임용된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은 전임교수로 임용되었지만 사업기간과 재정적 부담 때문에 대부분 비정년 전임교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정년직 전임교수 임용 등에 대해 국가적 제도 개선이 있어야 산학협력이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되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교수로 보지 말고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 내에서 교수라는 명칭으로 채용하다보니 교수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여 있으므로 직원으로 채용하여 산학협력중점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우 및 지원체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아직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하기 위한 연구 및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대부분 지역의 산업체(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소 등 포함) 등에서 임원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퇴직한 사람들을 인사치레로 초빙하여 자리를 차지케 하는 등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은 지양해야 하며, 산업체 재직기간동안 산학협력활동 경험, 강의경험, 교육경험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문화 이해 소양이 있는 분들을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예체능 계열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 보완이 필요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시, 본인의 역할과 사업 목적에 대한 체계적인 인터뷰를 통해 서로의 가치가 공감하는 수준에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권한과 책임도 보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이 국가 차원의 새로운 경

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학협력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이 대학에서는 꼭 필요하다. 현재는 LINC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업 종료 후에는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축소될 우려가 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활성화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LINC사업 종료 후라도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학의 최대 약점인 산업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커리큘럼 개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재 육성 등으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활용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 종료와 별개로 일정기간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소속 및 지위 변경, 자립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 되었으며, 자립화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4.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산학협력중점교수 관련 이론적 검토, 운영 현황 조사·분석,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크게 법·제도적, 재정적, 구조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지만 제15조 2항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며,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법)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다. 산학법에서는 산학연 협력과 관련된 ‘학연교수’는 정의하고 있지만,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정의와 임무에 대한 내용 등이 부족하고, 산학협력교수를 명명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대학 내 산학협력의 중요성 확산 및 산학협력 매개체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정기준에서 기존의 산학협력은 이 공계를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이

루어져 왔으나,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창의적 발상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창조경제시대에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까지 산학협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기준에는 예체능 계열, 소프트웨어산업, 디자인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 대부분인 소규모 업종은 소프트웨어산업, 디자인산업, 지식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예체능계열 또한 포함되어 차별규제가 개선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민간산업체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규모제한 없이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재정적인 측면에서 현재 LINC사업에 탈락되던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이 이직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의 전문성이 학교 내에 축적되는데 한계가 있다. LINC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인건비를 교비로 상당부분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신분 안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의 산업체에서 축적된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산학협력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대학 간의 연계 고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신분과 인건비 재원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건비에 대한 교비 지원 비율 혹은 전임화 비율 등을 평가지표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다양한 트랙과 역할 구분이 미비한 상황이며, 많은 대학들이 산학협력중점교수 만의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과 역량이 갖추어진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요약 및 결론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LINC사업, 산학

협력중점교수 등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도입,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해,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실태분석 내용을 토대로 법·제도적, 재정적, 구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개선 방향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학협력 활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이 대학의 산학협력 분위기를 확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부각된 상황이고,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활성화 보다는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지역별·대학별 비교분석, 산학협력중점교수 역량 분석 등의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

- 김승환, 2012,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모델 개발, POSTECH 산학협력정책연구소.  
 김승환, 2013, 산학협력중점교수 내실화 방안, POSTECH 산학협력정책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 2012,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한국연구재단, 2013, 대학산학협력실태조사서.

• 교신 : 이종호, 52828,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jhl@gnu.ac.kr, 전화: 055-772-2185)

Correspondence : LEE Jong-Ho, 52828,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501, Jinju-daero, Jinju-si, Gyeongsang nam-do, Korea(E-mail: jhl@gnu.ac.kr, phone: +82-55-772-2185)

(접수: 2015.10.26, 수정: 2015.11.15, 채택: 2015.11.18)